

벤투호 복귀한 손흥민...센추리클럽 향해 다시 댕다

A매치 통산 96경기서 30골...상반기 치를 평가전서 가입 가능성 높아

24일 이란과 최종예선 9차전 홈경기·29일 UAE와 10차전 원정경기

4개월여 만에 벤투호에 복귀한 '캡틴' 손흥민(30·토트넘)이 센추리클럽을 향해 다시 댕다.

손흥민은 14일 파울루 벤투 감독이 발표한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9~10차전에 나설 태극전사 25명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11월 아랍에미리트(UAE), 이라크와 최종예선에 나선 뒤 소속팀에서 부상을 입어 올해 1~2월 치러진 레바논, 시리아와 최종예선에 결장했던 손흥민이 4개월 만에 돌아왔다. 멈춰있던 A매치 시계도 다시 돌아간다.

지난해 11월17일 이라크와 최종예선 6차전에서 96번째 A매치를 치른 손흥민은 이번 최종예선에서 센추리클럽(A매치 100경기) 가입이 유력했다.

하지만 올해 초 부상으로 최종예선 7, 8차전

을 모두 건너뛰면서 센추리클럽 가입이 미뤄졌다.

벤투호는 오는 2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이란과 최종예선 9차전 홈 경기를 치른 뒤 UAE로 건너가 29일 두바이 알막툼 스타디움에서 UAE와 최종예선 10차전 원정 경기를 갖는다. 손흥민이 2경기를 모두 뛰면 통산 A매치 98경기를 소화하게 된다.

이대로라면 월드컵을 앞두고 상반기에 치를 평가전에서 손흥민이 센추리클럽에 가입할 가능성이 크다.

손흥민이 100경기 고지를 밟으면 한국 선수로는 역대 16번째로 센추리클럽에 가입한다. 대한축구협회 통계 기준으로 박지성, 조광래(이상 100경기)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 한국 선수 A매치 최다 출전에서 공동 14위다.

A매치 득점포도 재가동한다.

손흥민은 이번 카타르월드컵 최종예선에서 이란과 원정 경기 득점을 포함해 3골을 넣으며 해결사 역할을 했다. 부상으로 2경기를 쉬었지만, 남은 2연전에서 또 한 번 골 사냥에 나선다.

손흥민은 A매치 96경기에서 30골을 기록하고 있다. 허정무, 김도훈, 최순호와 함께 남자 축구 A매치 득점 공동 6위다.

한 골만 더 추가하면 단독 6위가 된다. 또 3골을 더하면 이동국, 김재환(이상 33골)과 함께 공동 4위까지 올라간다.

A매치 개인 최다 득점 1위는 차범근 전 축구 대표팀 감독으로 58골을 기록했다.

최근 소속팀에서 컨디션은 좋다.

지난 13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경기에서 침묵했으나, 앞서 리그 2경기 연속골과 함께



득점랭킹 공동 5위(11골)에 올라 있다. 지난달엔 단짝 해리 케인과 EPL 통산 37번째 합작골을 만들어 역사를 쓰기도 했다.

한편 대표팀은 21일 파주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 입소한다.

뉴스시

KIA 슈퍼루키 김도영, 시범경기 첫 홈런 신고

삼성전 최하늘 상대로 솔로포

'제2의 이종범'으로 불리는 KIA 타이거즈 신인 내야수 김도영이 시범경기에서 첫 손맛을 봤다.

김도영은 15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2 신한은행 울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전에 톱타자 겸 3루수로 나서 홈런 포를 쏘아올렸다.

첫 타석에서 2루수 땅볼로 출루한 김도영은 3회 두 번째 타석에서 삼성 두 번째 투수

최하늘을 상대로 홈런을 터뜨렸다.

선두타자로 등장한 김도영은 볼카운트 1B-1S에서 최하늘의 한가운데 체인지업을 잡아 당겨 좌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포로 연결했다.

KIA는 지난해 연고지 신인 우선 지명에서 고심 끝에 김도영을 택했다. 또 다른 후보였던 강승구 투수 문동주는 한화 이글스로 향했다.

4억이라는 계약금이 말해주듯 KIA는 김도영이 차세대 주전 유격수로 성장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지난 14일 삼성전에서 멀티 히트를 친 김도영은 세 번째 시범경기 만에 장타 능력까지 과시하면서 KIA팬들의 기대감을 불렀다.

이슬비기자

화순군, 전라남도 소년체육대회 3종목 개최

복싱·배드민턴·볼링 3종목...오는 29일까지 진행

제51회 전국소년체전에 출전할 전남 대표선수 선발하는 '2022 전라남도 소년체육대회' 3개 종목이 화순군에서 열린다.

화순군은 3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2주간 열리는 '2022 전라남도 소년체육대회'의 복싱, 배드민턴, 볼링 3종목을 하니움체육관 일원과 핀엑스 볼링장에서 진행한다.

사전 경기로 열린 복싱 경기는 지난 11일 하니움복싱체육관에서 진행됐다.

화순중, 전남체중 등 선수단 30여 명이 출전한 경기에서 전남 대표 선수 11명이 선발됐다. 화순군은 화순중과 능주중 학생 3명이 선발돼

5월 열린 전국소년체전을 준비한다.

이달 25일부터 27일까지는 화순읍 핀엑스 볼링장에서 볼링 경기가, 29일에는 이용대체육관에서 배드민턴 경기가 예정돼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우리 군 엘리트 특화 종목인 복싱과 배드민턴 종목에서 새로운 기대주가 발굴되길 바란다"며 "엘리트 선수 육성이 더욱더 활성화돼 학교 체육이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51회 전국소년체전은 경북 구미에서,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개최할 예정이다. 화순=박순철기자

'2022 정남진 장흥 장사씨름대회' 내일까지 장흥서 개최

장흥실내체육관에서 무관중 개최...장흥군 출신 문준석 통산 7번째 태백장사 등극



'위더스제약 2022 민속씨름 정남진 장흥장사씨름대회'가 대회 중반을 달려며 모래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하고 장흥군씨름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장흥실내체육관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태백, 금강, 한라, 백두 등 체급별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눠 진행되는 경기에는 전국 13개의 실업팀, 128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예선부터 준결승(3·4위전 포함) 경기는 3판 2선승제로 진행하며, 장사결정전은 5판 3선승제로 승자를 가린다.

14일 펼쳐진 태백장사 결정전에는 장흥군 관산을 출신 문준석(31, 수원특례시청)이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지난 1월 설날 대회에서 태백급 우승을 차지한 문준석은 올해 2관왕을 달성하며, 개인 통산 7번째 태백장사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문준석은 "감동넘치게 응원을 해주셔서 우승할 수 있었다"며 "친형(문형석 장사)이 내일 금강장사에 도전하는데 형도 좋은 성적을 얻어서 고향에서 형제 장사 등극이라는 타이틀을 획득했다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17일까지 진행되는 장사 결정전은 MBC 스포츠플러스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22년만에 장흥군에서 민속씨름대회가 개최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우상혁, 세계 무대 일낸다...국제 육상계도 주목

베오그라드서 열리는 세계실내육상선수권서 한국 육상 최초 금메달 도전

15일(한국시간) 국제육상경기연맹은 홈페이지를 통해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리는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를 전망했다.

종목 최고의 스타에게 돌아가는 메인 사진을 장식한 이는 다음 아닌 한국의 우상혁이었다. 한국 선수 중 유일하게 출전하는 우상혁이 한국 높이뛰기 최초 세계선수권 메달을 노린다.

우상혁은 2020 도쿄올림픽을 통해 혜성처럼 등장한 선수다. 남자 높이뛰기에 출전한 우상혁은 2m35를 넘어 4위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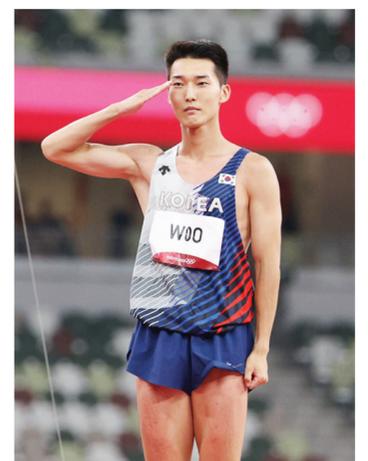
한국 남자 높이뛰기 신기록과 한국 육상 트랙·필드의 올림픽 사상 최고 성적을 동시에 갈아치웠다. 갈망하던 메달을 한 곳 차이로 놓쳤음에도 "가능성을 봤으니 후회는 없다"는 긍정적 태도는 국민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올해도 우상혁은 뜨겁다. 지난 2월 체코 후스토페체에서 열린 세계육상연맹 실내 투어에서 2m36을 넘어 자신의 한국 기록을 갈아치운 우상혁은 같은 달 슬로바키아 반스카 비스트리차에서 또 다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모두가 우상혁을 주목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해보일 정도로 페이스가 좋다.

국제육상경기연맹은 "현재로서는 우상혁이 가장 강력해보인다"면서 지난달 거둔 두 차례 성과를 상세히 소개했다.

이번 대회 출전 선수 중 올 시즌 실내에서 2m30 이상을 넘어선 선수는 우상혁 뿐이다.



우상혁 외에도 5명의 선수가 2m30 이상을 찍었지만 모두 이번 대회 엔트리에서 빠졌다.

출전 선수 2위 기록은 유럽실내육상선수권대회 동메달리스트인 토마스 카모이(벨기에)의 2m27이다. 우상혁이 자신의 페이스만 유지한다면 첫 입상은 물론 금메달도 무모한 목표는 아니다.

국제육상경기연맹은 "(2008년 우승자인) 무타즈 예사 바시(카타르) 이후 우상혁은 아시아 출신 두 번째 우승자 또는 메달리스트가 될 것"이라고 점쳤다. 우상혁의 메달 도전일은 20일이다.

전남드래곤즈, 늦은 첫 승 신고...홈에서 연승으로 이어간다

봄을 알리는 시원한 빙속에서 진행된 지난 13일 일요일 오후 1시 30분에 밀양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된 4라운드 전남과 경남 맞대결은 전반 초반부터 난타전이었다.

경남은 전반 시작과 동시에 발 빠른 측면 돌파를 통해 전남 골문을 위협했다.

전반 4분 윌패스를 받은 장충근의 오른발 슛은 골문을 가르며 선취득점을 기록했고 경기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하지만 전반 10분 경남 윌리안 선수가 그라운드에 주저앉았고 갑작스런 부상으로 이우혁이 투입되었으며 전남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전남은 전반 15분 센터서클에서 볼 경합과 정에서 얻은 볼을 장성재의 오른발 잡아찬 슛

은 우측 골대 모서리로 빨려 들어갔다. 시즌 첫 득점이자 원더골이다.

득점 후 경기 분위기가 완전히 전남에게 넘어왔다. 빌드업을 통해 중앙을 장악하면서 측면을 활용한 플레이가 돋보였다. 전반 26분 김태현의 긴 스로인은 문전 앞 경합과정에서 카차라바의 왼발에 걸리면서 두 번째 골문을 흔들며 역전하였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전경준 감독은 "힘든 시즌 초반에 오늘 경기는 내용보다는 결과가 중요했다. 선제 실점 후 선수들이 위축되는 것을 걱정했지만 장성재 선수의 멋진 득점으로 경기 흐름을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승리 소감을 밝혔



다.

16일 수요일 오후 7시에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진행되는 5라운드 전남드래곤즈와 부천 FC 경기가 이어진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2022 순천만국가정원컵 전국유도대회 개최

20일까지 순천팔마체육관에서

2022 순천만국가정원컵전국유도대회가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순천팔마체육관에서 6일간 열린다.

이번 대회는 2022 국가대표 2차 평가전 및 꿈나무선수 평가전을 겸해 치러진다.

대회는 대한유도회가 주최하고 전라남도유도회와 순천시유도회가 주관하며, 전라남도순천시, 순천시체육회, 제우인터내셔널, 하나은행, ㈜스다,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가 후원한다.

순천=김승호기자